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천'이 발행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성북동천은 성북동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꾸린 순수 주민 모임입니다.

성북동 잡지 창간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골목은 찢줄이다.

골목은 구릉 곳곳을 흘러

마침내는 성북동이라는 몸을 완성해 낸다.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자욱하고
한낮의 햇살 좋은 시간은 노인네들이 살아온 구비처럼
온갖 곡절을 간직한 채 졸고 있는 골목.

성북동 골목은 저마다 다른 몸짓을 하고 살아간다.

알록달록 무늬 고운 얼굴을 하거나

시멘트 바닥에 감나무 한 그루 키우며 살기도 한다.

골목은

그대로 성북동이고

성북동 사람들이다.

* 표지 글씨는 성북구 평생 학습관 수련생인 박중순·전현숙님께서 쓰신 글을 집자하였습니다. / 이 책은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차례

1p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5p **성북동, 변화의 길 위에 서다.**
권두 칼럼 / 북문의 아침 창가에서

8p **한양도성**
성북의 역사 문화 유산

22p **성북동에서**

24p **문화소식**

26p **고 한창기 발행인의 뿌리깊은나무**

28p **그리운 명랑 이발관 시절**
성북동 이야기

38p **성북동, 이렇게 걸어요**

최호진

최 연

김선정

최성수

신현수

46p **티티카카 다이닝 클럽**
성북동, 맛있는 이야기

50p **국밥과 빈대떡 맛에 하루가 즐겁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58p **성북동 사람들의 한마디**

60p **성북동 사람 이태준**
성북동의 예술가

64p **한 눈으로 보는 성북동천 마을 학교**

65p **시 창작교실 작품**

72p **서울 지붕 첫 마을, 성북동 옛날 사진전**

74p **‘성북동천’ 마을학교가 개최한 강좌**

76p **성북동 옛 이야기**

김기민

박진하

이경돈

박용선



성북동, 변화의 길 위에 서다.

권두 칼럼 / 북동의 아침 창가에서

최호진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무국장

서울 성북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지금은 국수집이 곳곳에 있지만, 외식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돈까스를 먹으러 왔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 ‘성북동 비둘기’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대중적인 관심이 모아지는데, 조용한 동네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난 이유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과 장소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국내 최고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관’, 법정 스님이 계시던 ‘길상사’, 소설가 이태준의 고택 ‘수연산방’, 한국미를 널리 알린 최순우 선생이 살던 한옥 등 사람들의 관심이 문화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더 구석으로, 발길이 적은 곳으로 모이기 마련이다. 성북동 또한 그런 매력을 가진 곳일까. 외국 대사관저들과 큰 규모의 단독 주택과 고급 빌라가 있고, 또한 좁은 골목길에 개량된 한옥과 다세대 주택도 밀집되어 있으며, 성곽 아래 비탈에 자리잡은 허름한 집들과 동네가 모여 있는 곳이 성북동이다. 이 동네는 고층 아파트가 없고, 지하철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흔한 노래방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다. 여전히 불량주거지역으로 묶여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동네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 조차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네가 유명세를 타니 보석, 의류 업종이 들어오고, 근 몇 년 사이에 음식점이 많이 늘어났다. 언론에서 찾아가기 좋은 명소로 봄가을이면 성북동을 단골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인들이 보는 가이드북에도 등장하는 동네가 되었다. 전국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커피점은 성북동에도 열 손가락을 넘길 정도로 생겼고, 새롭게 들어오는 번듯한 가게 사이사이로 옛 철물점과 이발소를 노인정 삼아 모여있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동네가 외부에 알려지면, 동네의 주체가 바뀌는 현상을 쉽게 목격하게 된다. 인사동이 그렇고 삼청동이 그렇다. 북촌과 서촌은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과 제도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여지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계기는 다르겠지만,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생겨나고 그를 뒷받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생겨나고 있다. 성북동에도 크고 작은 마을과 공동체 모임, 협동조합 등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움직임이 성북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 행정과 지원 제도의 경직성, 보편적 가치의 사회 인식 등 다양한 평가의 지점들을 대입하여 좀 더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우리 스스로도 참여자 중심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럴 듯 하게 포장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수십년 시간의 범위속에 있는 성북동의 정체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과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본은 성북동길의 가로변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모른다. 이 동네가 어땠으면 좋을까에 대한 판단은 이 동네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와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지 먼저 준비하고 알려야 한다. 그것이 성북동에 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동네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해야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를 고민하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성북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 먼 훗날 우리의 아이들에게 성북동은 어떤 동네로 보여지고 기억될까? 

최 연

프레스리안 서울학교 교장

1. 천도지(遷都地)의 선택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개경(開京) 수창궁(壽昌宮)에서 국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보통 왕조가 바뀌면 국호(國號)를 새로 짓고 수도(首都)을 옮기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이기도 하였습니다만 개경은 본래 구 왕조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근거지였기에 새로운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크게 유행했던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개경은 오백년의 도읍지로 그 기운이 이미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권중화(權仲和)가 천도의 후보지로 공주 계룡산(鷄龍山)을 추천하자 태조는 큰 관심을 보이며 계룡산을 직접 답사하고 산수의 형세를 심사한 결과 이곳을 천도지로 삼을 결심을 하여 수도건설의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수의 대가였던 경기도 관찰사 하륜(河崧)이 계룡산의 위치가 남쪽에 편재하여 동북, 서북방과 너무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풍수상으로도 계룡산의 지형이 길흉정방에 있어서 길지(吉地)가 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고려시대 이래 서운관(書雲觀)에서 소장해 오던 비록(秘錄)을 하륜에게 주고 새 도읍지를 물색하도록 명하니 하륜은 천

도의 후보지로 한양의 무악(毋岳) 아래 현재 신촌과 연희동 일대를 지목하였고 태조는 당시 좌시중이었던 조준(趙浚)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케 하여 도읍지로서 적합한지를 알아보게 하였는데 하륜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반대 하였습니다.

할 수 없어 태조가 군신을 거느리고 무악 현지를 직접 두루 살펴보았으나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무악천도(毋岳遷都)는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풍수 지리적으로 비보(裨補)의 요지로써 지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고려 말 우왕, 공양왕 대에는 한때 천도의 후보지로 결정된 일도 있었던 남경(南京)을 새 도읍지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신하들과 고려 남경의 옛 궁궐터를 살펴보고 산세를 관망하면서 동행한 지사 윤신달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국내에서는 개경을 상지로 하고 이곳을 그 다음으로 치지만 서북방이 낮고 수천이 고악하여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조는 만족하여 왕사(王師) 무학(無學)에게 물었더니 “이곳은 사면이 고수하고 중앙이 평탄하여 도읍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에 쫓아서 결정함이 좋겠다.”라는 신중론을 진언하자 하륜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하들이 반드시 천도를 할 바에는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여 한양천도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양천도와 함께 궁궐의 조성과 도성의 축조 등 그 시설이 차례로 완성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신의왕후(新義王后) 한씨(韓氏) 소생인 방원이 계비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숙번(李叔蕃) 등 자기의 사병을 동원하여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아들인 세자 방석과 재상

(宰相) 중심의 신도정치(臣道政治)를 주장하는 정도전, 남은 등의 세력을 제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태조는 골육상잔에 실망한 나머지 9월에 왕위를 새로운 세자에게 물려주니 이가 곧 정종(定宗)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양에 불길한 징조가 잇달아 일어나 민심이 흉흉해지자 서운관에서는 이를 이유로 글을 올려 피방 하기를 주청 하였습니다.

이에 정종은 즉위 년 1399년에 종친과 공신들을 모아 어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가부를 물었는데 모두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개경으로 환도를 실행하였습니다.

개경환도 이후 1년도 채 못 되어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정종은 상왕인 태조의 윤허를 얻어 당시의 실력자 정안군 방원을 세자로 삼고 곧 이어 같은 해에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가 곧 태종(太宗)입니다.

태종이 즉위한 다음 달에 개경의 수창궁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다시 천도론이 대두 되었고 태종 2년에 왕이 하륜 등 문무 대신들을 모아 한양천도의 가부(可否)를 물었더니 구도개경론(舊都開京論), 신도한양론(新都漢陽論), 무악이도론(毋岳移都論) 등의 3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대부분이 개경에 머물자는 의견이므로 천도문제는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태상왕(太上王)인 태조가 천도 문제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자 태종도 이에 동조하여 무악 일대를 친히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중신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태종은 개경, 한양, 무악 이 세 곳을 놓고 종묘(宗廟)에서 군신들과 더불어 척전(擲錢)으로 점을 쳤습니다.

신도한양이 이길일흉(二吉一凶), 개경과 무악이 이길일길(二凶一吉)이란 결과가 나왔으므로 왕은 한양재천도론의 최종적 결정을 내려 태종

5년에 개경을 버리고 한양에 입성하여 창덕궁(昌德宮)에 입어함으로서 여러 해를 두고 분분했던 천도문제는 완전히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2. 한양의 풍수 지리적 입지

중국식으로 지명을 정하는 원칙 중의 하나로 ‘산남수북왈양(山南水北曰陽), 일지소조왈양(日之所照曰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산의 남쪽, 물의 북쪽이면서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양(陽)이라고 한다고 하니 한양(漢陽)이란 ‘북한산 마을’의 양지 바른 곳으로 한강의 북쪽, 삼각산의 남쪽 기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양은 삼각산에 기대고 한강을 품에 안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典型)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양은 한강을 중심으로 북으로 삼각산(三角山)이 남으로는 관악산(冠岳山)이 동쪽 끝머리에는 아차산(峨嵋山)이 서쪽 끝머리에는 행주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덕양산(德陽山)이 큰 울타리를 쳐주고 있으니 이를 일러 외사산(外四山) 즉 한양의 바깥 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봉우리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보현봉에서 솟구쳐 형제봉을 지나 보토현(補土峴)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솟아오른 곳이 북악(北岳)으로 한양의 주산(主山)입니다.

조선의 정전(正殿)으로 그 권의와 위용을 떨쳤던 경복궁(景福宮)이 기대고 있는 산이 바로 주산(主山)으로서의 북악이기도 합니다.

북악에서 동쪽으로는 낮은 산줄기가 이어지다가 조그만 봉우리가 아주 낮게 봉긋 솟았으니 이름하여 매 봉우리인 응봉(鷹峰)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 성균관(成均館) 그리고 종묘를 품고 있습니다.

응봉을 지나 동쪽 끝머리에 타락산(駝駱山)이 있으니 지금의 낙산(駱山)을 말합니다.

북악에서 서쪽으로는 불끈 솟아올라 인왕산(仁王山)을 일구었고 무악재(母岳)에서 내려앉았다가 안산(鞍山)으로 다시 솟구쳐 서쪽 끝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남으로는 남산(南山)이라 불리는 목멱산(木覓山)이 부드럽게 엮여 있는데 그 생김새가 누에와 비슷하다고 잠두봉(蠶頭峰)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산인 북악(北岳)에는 백악신사(白岳神祠)를 모셔 진국백(鎭國伯)으로 삼았는데 이런 연유로 달리 백악이라고도 부르며 남산을 목멱산이라 달리 부르는 것은 그곳에 목멱신사(木覓神祠)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양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줄기를 살펴보면 도성 안 즉 내사산 안에 있는 물줄기를 내수(內水)라고 하는데 청계천(淸溪川)의 이름이요 이는 모두 외수(外水)로 흘러 들어가고, 내사산 밖 외사산 안에 있는 물줄기를 외수(外水)라고 하며 한강(漢江)의 이름입니다.

한강의 북쪽 즉 한양에서 외수인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는 크게 보아 세 갈래인데 그 하나는 삼각산(三角山)의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 사이의 계곡으로 흐르는 홍제천(弘濟川)과 비봉(碑峰)과 수리봉 서쪽능선으로 흘러내리는 불광천(佛光川)이 지금은 거대한 두 개의 산으로 변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지만 예전에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섬인 난지도 옆 월드컵경기장에서 합류하여 한강에 스며들고 다른 하나는 도봉산(道峰山)의 동쪽 능선과 수락산(水洛山)의 서쪽능선이 부려 놓은 모든 자그마한 물줄기들을 한데 모은 중랑천(中浪川)이 상계, 중계, 하계의 대형 아파트단지로 변한 마들 평야를 알맞게 적시고 한양대 앞 살곶이 다리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여

한강에 안기고 마지막으로 인왕산에서 발원하여 도성 안을 동쪽으로 가로질러 살곶이 다리에서 중랑천과 합류하여 한강에 안기는 청계천(淸溪川)이 그것입니다.

세 갈래의 물줄기중 내사산 안(도성 안)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청계천 뿐이므로 청계천이 한양의 내수임에 분명합니다.

내수인 청계천은 북악과 인왕산 사이에서 발원하여 경복궁을 휘돌러 나오는 금천(禁川)과 삼청동에서 발원한 중학천(中學川)을 받아 안고 도성 밖으로 흘러나가 북악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드는 성북천(城北川)과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드는 정릉천(貞陵川)을 아울러 마침내 한강으로 스며드는 물줄기입니다.

한양 도읍지의 물줄기를 풍수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내수(內水)인 청계천은 도성의 서쪽인 인왕산에서 발원하여 동진(東進)하고 외수인 한강은 동쪽 끝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서진(西進)을 하다가 살곶이 다리 앞에서 서로 아우르며 하나가 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다가 어우러지며 한 방향으로 바뀌는 절묘한 수태극(水太極)의 형상이니 이를 길지(吉地)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각산(三角山)을 종산(宗山)으로 북악(北岳)을 주산(主山)으로 좌청룡을 낙산(駱山)으로 우백호를 인왕산(仁王山)으로 안산(案山)을 목멱산(木覓山)으로 조산(朝山)을 관악산(冠岳山)으로 하는 지형은 풍수 지리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첫째는 종산인 삼각산의 기운이 주산인 북악에 전해지는데 있어 그 길목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북악터널 위쪽이 너무 낮아서 병목현상을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좌청룡인 낙산이 우백호인 인왕산에 비해 무척이나 허약함이고, 셋째는 조산인 관악산의 화기(火氣)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보완해줄 묘책이 있기 마련인데 풍수학에서는 너무 허(虛)한 기(氣)의 땅을 보완(補完)해 주는 것을

비보(裨補)라 하고 너무 강(剛)한 기(氣)의 땅을 이완(弛緩)시켜 주는 것을 압승(壓勝)이라고 합니다.

지세가 갑자기 좁아져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북악터널 위쪽 부분을 비보하기 위하여 매년 날을 정해 백성들을 동원하여 흙을 퍼다 날라 오목한 곳을 메우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곳을 매년 흙을 더하는 고개라고 보토현(補土峴)이라고 불렀습니다.

좌청룡의 동쪽 산줄기가 허약한 것의 비보책(裨補策)으로는 낙산의 산줄기를 조금 더 뻗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동대문 역사공원 자리에 가산(假山)을 쌓았고 사대문의 이름이 모두 세 글자인데 동대문만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고 네 글자로 이름 지었으며 흥인지문 앞에는 한걸을 더 둘러친 웅성(甕城)을 설치하였습니다.

관악산의 형세(形勢)는 화성(火星)으로 예로부터 ‘왕도남방지화산(王都南方之火山)’이라 하여 화기(火氣)의 산으로 보았는데 이를 누르기 위한 압승책(壓勝策)으로 남대문 밖에 남지(南池)를 조성하였고 관악산 옆에 있는 호압산에는 한우몰이란 연못을 설치하였으며 관악산 주봉인 연주대에는 아홉 개의 방화부(防火符)를 넣은 물단지를 놓아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대문의 글씨를 모두 가로로 썼는데 남대문만 숭례문(崇禮門)이라고 세로로 썼는데 이것은 숭례문의 예(禮)는 5행(行)의 화(火)에 해당되고 숭(崇)은 불꽃이 타오르는 상형문자(象形文字)이므로 숭례(崇禮)라는 이름은 세로로 써야 불이 잘 타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타오르는 불로 맞불을 놓음으로서 관악의 화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로서 불을 제압하고(以火制火) 불로서 불을 다스리는(以火治火) 셈입니다.

그런데 매년 흙을 더 보충해야 할 보토현에는 그 밑으로 아예 커다

란 구멍을 뚫고 도로를 냈고 가산을 더욱 높게 쌓아야 함에도 오히려 남아 있던 가산마저도 밀어버리고 운동장을 만들었고 남지도 메우고 도로를 놓았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관악의 화기를 잡아야 할 숭례문은 그 기운이 다 했는지 스스로 불타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산세를 살펴보면 주산인 북악에서 왼쪽으로 동향(東向)하는 응봉과 타락산의 산줄기를 좌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으로 서향(西向)하는 인왕산의 산줄기를 우백호라 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 좌청룡 보다 우백호가 우람하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좌청룡은 적자(嫡子), 장자(長子)를 뜻하고 우백호는 서자(庶子), 지손(枝孫)을 뜻하고 불교에서도 좌(左)는 체(體)요 우(右)는 용(用)을 뜻해 왼쪽을 근본으로 오른쪽을 쓰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조선 오백년 동안 장자가 임금이 되어 제대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은 선조(宣祖)와 정조(正祖) 둘 뿐인데 그나마 선조 때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태로웠고 정조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장손으로 왕위에 올랐던 이들은 거의가 단명했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데 세종의 아들 문종은 병약하여 단명했고 그의 아들 단종은 삼촌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했고 세조의 아들 예종도 단명했고 적자가 아닌 성종이 예종에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의 맏아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연산군을 쫓아낸 중종의 맏아들 인종도 단명했으며 효종의 장자 현종도 숙종의 장자 경종도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로 견주어지는 안산(案山)으로서의 목멱산은 주산인 북악과 너무 가까이 있고 그 위세 또한 주산인 북악보다 강하여 늘 주변국의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렇듯이 문제가 많은 풍수적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왜 굳이 이렇게 도움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자학의 이념에 기초한 도움의 건설이라는 대의를 가진 삼봉 정도전(鄭道傳)의 고집 때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궁궐의 좌향(坐向)에 대하여 삼봉(三峰)과 무학(無學)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대군주가 살고 있는 궁궐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를 향하는가(坐向)는 도움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주군은 남쪽을 향해 통치해야 하고 신하는 북쪽을 향해 주군을 섬겨야 한다는 성리학 이념으로 궁궐의 좌향(坐向)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반하여 무학(無學)은 으뜸산인 조산(朝山)은 삼각산(三角山)으로 하고 인왕산을 주산(主山)으로 삼고 북악(北岳)을 좌청룡으로 목멱산(木覓山)을 우백호로 타락산(駝駱山)을 안산(案山)으로 삼아 궁궐이 동쪽을 바라보는 좌향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주산으로서의 인왕산은 북악 같이 푸석돌이 아니라 단단한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마주보는 안산(案山)인 타락산(駝山)보다 매우 높고 세력도 출중해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를 뜻하는 좌청룡인 북악과 지손(支孫)과 서자(庶子)를 뜻하는 우백호인 목멱산을 비교해 볼 때 좌청룡의 기세가 크고 길어 장남이 그 아우들을 세력으로 능히 아우를 수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의 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에 성공한 일등개국공신인 삼봉(三峰)과 몰락한 왕조의 지배이념이었던 불교의 왕사인 무학(無學)의 정치적 입지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봉(三峰) 정도전과 무학(無學) 대사의 궁궐의 좌향(坐向)에 대한

논란은 의상(義湘)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산(漢山)은 금국(金局)이라서 궁궐을 반드시 동향(東向)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쇠약해진다. 터를 고르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동쪽은 허(虛)하고 남쪽은 낮으니 북악산 아래 터를 잡지마라.

검은 옷을 입은 도적(倭賊)이 동쪽에서 쳐들어올까 두렵다.

도움을 정하려는 자가 스님 말을 들으면 나라의 운수가 좀 연장된다.

그러나 만약 정(鄭)씨 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걸면 5대도 못가서 왕위를 뺏는 변고가 생기리라. 또 2백년 후에는 대한란이 닥쳐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삼가 조심하라.”

이처럼 <삼한산림비기>에서는 스님의 말을 따르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북악 아래 남향으로 궁궐을 지었고 그 결과는 예언한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5대도 못 내려가 왕위를 찬탈하는 변고가 일어났고(세조가 단종을 내몰고 왕위에 올랐는데 세조는 태조의 증손자이니 왕위로는 7대지만 가계로는 4대입니다.) ‘200년 후의 대한란’은 임진왜란을 가리키는데 한양으로 천도한지 198년 만의 일입니다.

3. 한양도성 쌓기

도움의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제일 먼저 궁궐(宮闕)과 종묘(宗廟)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을 건설하게 됩니다.

임금의 자리가 세습되는 고대사회는 임금을 낳은 조상들을 기리는 사당(祠堂)인 종묘(宗廟)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하므로 든실한 씨앗과 비옥한 농토를 바라며 토지의 신(社)과 곡식의 신(稷)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직단(社稷壇) 그리고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宮闕)을 우선적으로 지었습니다.

그 위치는 중국의 관습에 따라 임금은 배북남면(背北南面)하여 통치행위를 하므로 궁궐은 남향으로 좌향(坐向)을 잡고 궁궐을 중심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왼쪽인 동쪽에 종묘(宗廟)를 오른쪽인 서쪽에 사직단(社稷壇)을 건설하였습니다.

궁궐, 종묘, 사직의 건설을 끝내고 다음으로 도읍의 방위를 위해 도성을 쌓게 되는데 평소 태조는 “성은 국가의 울타리요 강폭(強暴)한 것을 방어하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며 도성의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태조의 뜻에 따라 개국공신 정도전은 한양에 궁궐(宮闕)을 짓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그리고 관아(官衙), 도로(道路), 시전(市廛) 등을 차례로 건설하고 다음으로 도성을 쌓기 위해 성터를 잡으려고 무수히 애를 썼으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노심초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내려 산에 올라보니 지금의 성이 둘러친 곳에는 눈이 녹았고 다른 데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눈이 녹은 선을 따라서 도성을 쌓았고 이 때문에 한양도성을 달리 설성(雪城)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확정된 도성은 북악(北岳), 낙타산(駱駝山), 목멱산(木覓山), 인왕산(仁王山)의 소위 내사산(內四山)을 연결하는 59,550척으로 지금의 도량형(度量衡)으로 환치시키면 대략18km 쯤 되는 길이입니다. 한양의 성곽은 태조가 처음 축조할 때는 석성(石城)과 토성(土城)이 섞여 있었으나 세종이 중수할 때 전부 석성으로 개축하였고 숙종 때에는 사괴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곽을 처음 축조할 당시 전국에서 민정 약12만 명을 동원하였는데 지역별로 경상도 49,897 명, 전라도 18,255 명, 강원도 9,736 명 동북면(함경도의 함흥 이남) 18,255 명, 서북면(평안도 안주 이남) 29,208 명 이었습니다.

성곽 전체를 97구간으로 나누어 백악 동쪽을 1구간으로 하여 그 당시 사용되던 천자문의 글자 순으로 하늘 천(天)에서 시작하여 낙산, 목멱산, 인왕산을 거쳐 백악 서쪽에는 97번째 천자문인 조문할 조(弔)로 끝났습니다.

한편 책임시공을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였는데 구간마다 책임자와 감독자의 이름, 차출된 지역의 군명(郡名), 천자문 97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자호(字號)를 성벽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축조한 도성은 삼군문(三軍門)에서 수비(守備)와 수축(修築)을 맡았는데 훈련도감(訓練都監)은 숙정문 동쪽에서 돈의문 북측까지, 금위영(禁衛營)은 돈의문에서 광희문 남쪽까지, 어영청(御營廳)은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를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곽으로 둘러쳐진 도성에 사람들의 왕래를 위해 문(門)을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대문(大門)을 내고 그 사이사이에 소문(小門)을 내어 모두 여덟 개의 문을 냈습니다.

이들 성문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는데 문 이름에 유교국가의 정치이념인 인의예지(仁義禮智) 4대 덕목을 결부시켜 조선왕조 수도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을 그냥 멋없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인 오상(五常),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가운데 인의예지 한글자씩을 붙여서 명명하였으니 동대문은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으로 이름 지었고 그렇

다면 북대문은 지(智) 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숙정문(肅靖門)이라 한 것은 숙정문을 세운 뒤에도 사람의 왕래가 적어 대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여 문루도 세우지 않은 유일한 대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이후 숙종(肅宗) 때 탕춘대성(蕩春臺城)을 쌓으면서 그 정문의 이름을 홍지문으로 명명하여 새롭게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문(四小門)의 이름은 동소문이 혜화문(惠化門)으로 지금의 혜화동에 복원이 되어 있으며 동소문의 처음 이름은 홍화문(弘化門)이었으나 성종24년(1493년) 창경궁(昌慶宮)을 조성하면서 그 정문이 홍화문이라고 하여 혼동을 피하려고 혜화문으로 개명하였고 서소문은 소의문(昭義門)으로 덕수궁 앞 서소문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서소문도 처음에는 소덕문(昭德門)이라 했으나 성종3년(1472)에 예종의 비(妃)를 장순왕후로 추존할 때 시호에 ‘소덕(昭德)’이 들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개명하였고 남소문은 광희문(光熙門)으로 지금도 동대문과 장충동 사이에 우뚝 서 있고 북소문은 창의문(彰義門) 또는 자하문(紫霞門)으로 불리며 세검정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 서 있습니다.

한양의 성곽은 태조 5년(1396)에 도성 축조를 마칠 때 대체적으로 성문과 문루가 만들어졌으며 성문은 모두 아래쪽에 월단(月團, 아치형 문) 즉 돌로 홍예(虹預)를 만들고 그 홍예문 위에는 누각 즉 문루를 세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문루는 모두 불에 타 없어졌고 월단만 남았다가 숙종과 영조 때에 문루가 중건되는데, 북대문인 숙정문은 여전히 문루를 세우지 않다가 최근에 복원 되었습니다. ㉔



성북동에서

--서시

김선정

공기는 살아있다
성북동 언덕을 힘들이지 않고 넘어오는
모든 것들을 주시하며
잠시도 눈 붙이지 못하는 외등.

아침은 골목의 밀려난 잠과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떠돌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이미 내 뒤편이 아니다
밤 새 열어놓은 수도꼭지를 흔드는 수근거림

기대고 붙잡을 아무 것도 없이
까치들은
골목과 숲으로, 집 앞 감나무 위로 흩어졌다 모인다

겨울과 밤 사이 공터 하나 생기고
그 속으로 사람들은 길을 닦고, 집을 짓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 언덕을 만들기 시작한다

* 김선정 : 성북동으로 시집와 30년을 살고 있으며, 소설 <거꾸로 크는 아이>를 낸 작가입니다.

* 그림은 성북동에 거주하는 김철우 화백이 성북동의 전경을 그린 것입니다.



문화소식

성북진경 페스티벌 <성북문화재단>

10.2 - 12.8

성북구립미술관 '위대한 유산' / 성북구립미술관

10.12 - 31

'간송가는길' 어린이민화 사생대회 / 성북예술창작터

10.12(토) 15:00

한양도성문화유산축제 '풍류순성' / 북정마을

10.26(토) - 27(일) 18:00

'만해 예술제' '한용운-햄릿' 공연 / 심우장

10.27(일) 17:00

정릉 이야기 콘서트 / 흥천사

10.26(토) - 27(일) 18:00

의릉 생태 문화축제 / 의릉-돌곶이

10.26(토) 14:00

아리랑 고개 골목시장 축제 / 골목시장

10.27(일) 11:30

'가을의 낭만' 산사음악회 / 심곡사

성북 마을축제 <15개동 주민센터>

10.11(금) 17:00

제2회 종암동 북바위 축제 / 종암동

10.12(토) 16:00

제2회 장위부마축제 / 장위2동

10.13(일) 16:00

제3회 삼선동 선녀축제 / 삼선동

10.17(목) 18:00

월곡2동 한마음 달맞이축제 / 월곡2동

10.19(토) 13:00

세계문화유산 의릉이 있는 돌곶이마을 감나무축제 / 석관동

10.19(토) 16:00

성곽 북정마을 달(月)제 · 공 축제 / 성북동

10.21(월) 15:00

길음골 한마음 어울림 축제 / 길음2동

10.23(수) 17:00

제1회 미아리고개 마을축제 / 돈암1동

10.26(토) 15:00

제1회 정릉 버들잎 축제 / 정릉1~4동

11.02(토) 10:00

밤나무골 한마음축제 / 월곡1동

11.02(토) 15:00

제6회 안암동 은행나무축제 / 안암동

11.02(토) 15:00

제2회 나눔과 화합의 길음문화축제 / 길음1동

고 한창기 발행인의 뿌리깊은나무

오래 전 성북동에 이 잡지의 이름을 딴 유물관이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잡지의 아련한 향기처럼 성북동의 향기가 늘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 사진은 성북동 초록옥상이 소장하고 있는 <뿌리깊은나무> 잡지 전권 53권을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 '우리글방'에서 전시 중인 모습입니다.
문의. 김선문 / sunmoonceo@gmail.com



최성수

시인 / 성북동 주민

내일이 옮긴 학교의 아이들과 첫 대면을 하는 날이라 이발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을 나서는데 퍼뜩 그 이발관이 떠올랐다. 서울로 전학 와 처음 살던 동네, 남들은 이름만 대면 부잣집이니 도둑굴이니 하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동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 비둘기'하며 시를 떠올리는 동네, 성북동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게 좁은 골목 끝에 자리잡은 이발관. 양철로 여러 번 덧칠해 뽀뽀뽀 적어 놓았던 '명랑 이발관'이라는 간판조차 촌스러워 정겹던 그 이발관.

그 이발관에 발길을 끊은 것이 벌써 20년이 넘는다. 같은 성북동이지만, 이사를 하고 나자 발길이 뜸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단골 이발소를 옮기게 된 것이다.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까?'

나는 자주 가던 이발소를 뒤로 하고, 그 옛날 동네를 찾아가 본다. 명랑 이발관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성북동 큰길에서 자동차 두어 대가 다닐 만한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도 이내 좁아져서 차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정도로 좁아지고, 마침내는 명랑 이발관 초입에서는 차는 다닐 수 없고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길로 바뀐다.

다른 길은 평지에서 좁은 골목을 따라 꼬불꼬불 돌아 올라가야 한다. 좀 뚱뚱한 사람 둘이 마주치면 한 사람은 몸을 벽에 밀착시켜야만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좁은 골목이다. 몇 번 굽이를 튼 이 골목은 낮은 축대 위에 지어진 집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축대 위에 지어진 집의 제일 끝에 '명랑 이발관'이 이름과는 달리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언덕길을 통해 이발관 앞으로 갔다가, 이발관에 들어서지 않고 골목을 따라 다시 큰길까지 걸어본다. 이 길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서울로 전학을 온 내가 날마다 휘젓고 다녔던 곳이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던 둘째 누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이 바로 명랑 이발관과 처마를 마주대고 있는 축대 위의 서너 채 집 중의 하나였다. 대낮에도 불을 켜야 사물 분간이 가능했던 그 방, 그러나 전기요금 때문에 웬만하면 캄캄한 채로 지내야 했던 골방이 누나와 나의 자취방이었다.

그 당시 우리가 주로 먹던 반찬은 통멸치가 서너 마리 들어간 김치찌개와 라면이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누나가 재래식 부엌에서 곤로에 끓여 들여 놓아준 찌개를, 나는 마치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 짐승처럼 일어나 부스스 대며 먹고 등교하곤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가 먹을 것은 라면이었다. 역시 까맣게 때가 전 곤로에 끓여

먹던 라면. 한 봉지에 다섯 개씩 들어 있던 그 라면은 점심인 때도 있었고, 더 자주 누나와 나의 저녁이었다.

사람의 식성이란 경험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규칙이 없는 법인지, 나는 지금도 라면은 잘 먹지 않는다.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김치찌개도 물리도록 먹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싶다.

통밀치가 들어 있는 김치찌개를 마주하면 나는 언제나 멀치부터 건져 먹곤 하는데, 아내는 그런 나를 보고 촌스럽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김치찌개에 들어 있는 통밀치가 가장 맛있다. 그 덩 덩하고 무미한 멀치의 맛은 아마도 기억 때문에 더 내 입맛에 닿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시절, 봄 소풍이던가 아니면 가을 소풍 때였을 게다. 지금은 기억할 수조차 없는 무슨 일 때문에 나는 누나에게 똥통 혼이 나게 되었다. 누나는 내 아랫도리를 벗기고 엉덩이를 짹 짹 소리가 나게 때렸는데, 아픔보다는 내 엉덩이에서 울리던 소리와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내 설움 때문에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한참 때리던 누나도 마침내는 울음을 터트리기도 말았는데, 누나 역시 겨우 고등학교 이학년이었고, 부모와 떨어져 동생을 책임져야 할 짐까지 지고 있었으니 자기 설움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동안 울던 누나는 갑자기 내 손목을 끌고 그 좁은 골목을 지나 가게로 가더니 이것저것 과자를 한아름 사주었다. 물론 내가 늘 먹고 싶어하던 사이다 한 병까지 산 누나는 아직도 녹진한 울음 끝이 남아



있는 소리로 내게 말을 건넸다.

“내일 소풍이지. 이거 너 다 싸가지고 가라.”

지금은 오십이 훌쩍 넘어버린 누나와 마흔 중반의 나는 가끔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누나는 무엇 때문에 야단을 쳤는지, 나는 왜 야단을 맞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 날의 일들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곤 한다.

우리 집에서 좁다란 길을 따라 명랑 이발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초등학교 학생인 내 또래 동네 아이들은 그 골목 좁은 곳에서 딱지치기를 하기도 했고, 그 좁은 곳을 휘저으며 구슬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놀이터는 명랑 이발관 앞이었는데, 제법 넓직한(지금 보면 손바닥만한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숨바꼭질이나 ‘다방구’와 같은 놀이를 하기에 적격이었다.

해가 저물도록 놀다가 친구들은 엄마들의 저녁 먹으라는 소리에 모두 들어가고 말았는데, 불러 줄 엄마가 없는 나는 혼자 남겨지는 적이 많았다. 그러면 나는 괜히 쓸쓸해져서 시골에 계신 엄마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는 어린 성격의 아이였다.

어쩌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오시면 나는 그제서야 의기양양한 그 또래의 소년들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들에게는 부모만한 버팀목은 없는 것 같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오신 때였는데, 나는 우리 골방에서 주인집 아들과 마주앉아 알지도 못할 주문을 외워야 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



서 우리가 외워야 했던 것은 저 끔찍하고 유명한 국민교육헌장이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로 이어지는 그 암호 같고 의미를 알 수 없던 문장은 당시 이 땅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강제로 외워야 하는 고문과 같은 과제였는데,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그것을 외우자 아버지는 그것도 중요한 숙제인 줄 아셨는지(하긴 중요한 숙제였다.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매를 맞아야 했으니까) 먼저 외우는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바람에 우리는 의미도 모르는 그 글을 목소리 높여 외우게 된 것이었다.

명랑 이발관의 키가 크고 잘 생긴 아저씨는 우리 또래가 머리를 깎으러 가면 사람 좋은 웃음을 띤 채 사각사각 머리를 깎아주곤 했는데, 나는 그 이발소 창 밖으로 보이는 성북동 아랫동네 풍경의 낮고 잔잔한 모습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발소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밖을 구경하곤 했는데, 특히 비 오는 날의 눅눅하고 가라앉은 풍경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이제 그 시절을 지나 먼 길을 걸어왔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를 데리고 그 동네에 가 본 적이 있었다. 아이는 좁은 골목과 다닥다닥한 집들에 낯선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마치 오래 된 앨범 속에 숨겨져 있던 흑백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착잡하고 쓸쓸해 졌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소년들은 어른 되나’하는 밥 딜런의 노랫말이 떠오르는 그 동네를 지나, 나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일까?

내 마음처럼 흐린 언덕길을 올라서자 아직도 명랑 이발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다. 그 집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어린 날의 나를 기다리며 세월을 견뎌온 것 같다. 여전히 낡은 간판에 멋없이 ‘명랑 이발관’이라는 문패를 내 단 채, 낮은 지붕을 머리에 이고, 어린 날 창 밖을 내다보던 나를 위해 세상을 향한 그 문을 열어 둔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단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이발사인 할머니가 느릿느릿 일어나 자리를 내주는데, 그 모습도 정지 화면처럼 시간에서 벗어나 있다. 머리를 깎는 이덕훈(69) 할머니는 이발사가 아니라 이웃집 할머니처럼 사각거리는 이발 가위 속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기억하는 멋쟁이 이발사 아저씨의 뒤를 이어 가게를 맡게 된 것이 28년째라는 할머니는 북만주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에서 이발사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이발에 대한 경험과 철학까지 들려주는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 창 밖을 내다보았다. 때때로 그 창가에 매달려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 내 모습이 이 창가에 어른거렸다.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은 이발의자와, 청테이프의 힘으로 벽에 간신히 붙어 있는 것 같은 유리 거울과, 할머니의 손가락에 닳고 달아 세월이 휘휘청청 감겨 있는 것 같은 이발 가위와, 나직나직한 말투로 어린 날로 안내해주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이발관을 나서자 꽃샘 바람이 내 얼굴을 향해 달려왔다. 그 바람은 한동안 지워졌던 시간 속에서 불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자꾸 뒤돌아보곤 했다. 거기 낡아 스룩스
룩대며 돌아가는 이발관 표시등이 있었고, 이름은 명랑하지만 그러나
풍경은 오히려 쓸쓸하거나 아련한 명랑 이발관이 있었고, 1960년대
의 어느 해, 서울의 풍경 속에서 낯설어 하던 내 어린 날이, 뒤돌아보
는 나를 향해 ‘너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

이 글은 <오 마이 뉴스>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명랑이발관은 지금은 없어지고, 할머니
는 큰 길 쪽으로 이발관을 옮겨 ‘새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시인

지난 5월 13일 일요일 성북구 투어에 나섰다. 진작부터 길상사와 심우장과 최순우 옛집 등 성북구 일대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는데 좀처럼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친한 친구와 함께 큰 맘 먹고 나섰다.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6번 출구로 나와 걸었다. 성북동길을 따라 걷다보니 가로등 위에서 성북구다문화축제를 한다는 밀러친 배너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성북구와 다문화라, 뭔가 연결이 잘 안됐다. 물론 성북구 답사를 마친 뒤에는 알게 됐지만. 천주교한국외방선교회 간판이 있어서 골목을 따라 올라가 봤다. 고색창연한 건물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신축 건물이다. 그런데 이 골목에 수녀회, 수사회 등 천주교 관련 건물이 많았고 기독교 계통인 경신고등학교도 있었다. 그래서 다문화인가?

골목을 내려와 성북동 길을 다시 걸었다. 간간이 외국인들이 눈에 띈다. 선잠단지를 구경했다. 선잠단지는 길가에 있었다. 선잠단은 잠신으로 알려진 서릉씨를 배향하는 단을 쌓고 제사 지내던 곳이다. 조선시대 왕비들이 누에를 길러 명주를 생산하기 위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매년 3월에 거행했는데 1908년 제기동에 있던 선농단과 함께 사직단으로 옮겼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그래서 선잠단‘지(址)’다.

준비해 간 지도를 보니 최순우 옛집을 지나쳐왔다. 한성대역쪽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눈에 잘 안 띈다. 팻말이 너무 작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냈고,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란 책으로 널리 알려진 최순우 선생이 작고할 때까지 8년간 망 머물렀던 집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일요일과 월요일은 문을 안 연다. 일요일 문을 안 열면 못 올 사람이 많을 텐데 아쉽다. 다시 와야겠다.

길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따져보니 13일이 간송미술관 봄 특별전 개관일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연히 날씨는 잘 맞춰 왔는데 줄이 너무 길다. 워낙 유명한 전시회라 아마도 이 계통 매니어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간송은 전형필의 호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오세창 선생이다. 오세창은 기자 출신으로 갑신정변 때는 일본에 망명하기도 했고 기미독립선언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다. 그는 서화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형필은 이 오세창의 적극적인 권유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민족문화재를 수집했다. 그래서 간송미술관은 국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 중의 하나다. 1943년 ‘훈민정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전형필이 당시 집 다섯 채 값에 해당하는 2천 원을 지불하고 훈민정음을 입수한 얘기는 유명한 일화다. 간송의 뜻에 따라 지금도 간송미술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언제 들어갈지 몰라 아쉽지만 간송미술관 관람은 포기했다.

선잠단지에서 길상사 쪽으로 방향을 잡아 걸으니 성락원이 나오고 성락원 주택단지도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 각국의 대사관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아프가니스탄, 호주,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그리스, 앙골라, 스웨덴,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등의 대사관저가 모여 있다. 비로소 성북구다문화축제가 이해됐다. 그럼 왜 하필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많지?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사의 업무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이 많은데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강대국의 대사관이 성북동에 가까이

있어 편리하다는 점과, 성북동이 있는 북악산은 청와대가 있어서 군 부대 및 경찰의 집중 경비지역이라 치안 유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이란단다. 그렇구나. 이제 성북구의 다문화축제에 대한 의문이 거의 풀렸다. 아마도 ‘다문화’ 하면 동남아 노동자를 떠올리던 버릇 때문에 더 이해가 안됐었나 보다. 성락원은 공사 중이라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 조선 고종의 아들 의친왕이 살던 별궁의 정원이다.

서울은 지금 소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성북동도 예외가 아니다. 곳곳에 플랜카드를 붙여놓았다.

드디어 길상사에 도착했다. 한 사람의 나눔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곳 길상사.

다 아는 것처럼 길상사는 원래 권력자들이 드나들던 ‘대원각’이라는 고급요정 이었는데 이 요정을 운영하던 김영한(법명 길상화)님이 아무 조건 없이 송광사에 시주하였고, 1997년 길상사라는 절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김영한은 시인 백석과의 이루어지지 않은 러브스토리로도 유명한데, 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으로부터 무려 70년 후, 백석과의 사랑을 잊지 못한 그녀는 출판사 창비에 나머지 재산을 모두 처분한 돈을 기금으로 내놓았고, 출판사는 백석문학상을 제정했다. 건물 중 일부는 개보수 하였으나 대부분 대원각 시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길상사는 법정스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시던 절로도 유명한데 법정스님이 주도해 만든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도량이기도 하다. 서울 도심에 이토록 깊은 숲이 있다니, 그리고 이 좋은 곳에 아무나 와서 쉬어갈 수 있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절 곳곳에 연등을 매달아 놓았다.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다. 몇

몇 스님들의 일탈 행위로 불교계 형편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스님들은 나라 곳곳에서 도를 깨치기 위해 오늘도 수행정진에 힘쓰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차를 한잔 마시고 한국가구박물관에 갔는데 역시 일요일은 휴관. 안타깝다. 삼청터널 쪽으로 길을 잡으니 아예 도로 이름이 대사관로다. 어느 나라 대사관저인지 건물이 으리으리하다.

대사관로를 내려와 외교관 사택을 지나니 만해 한용운이 직접 지어 살던 ‘심우장’이 나왔다. 1933년부터 돌아가신 1944년까지 살았던 집이다. 명색이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용운’이라는 책까지 펴냈으면서 심우장에 이제야 오게 되다니 민망하다.

그런데 심우장 올라가는 길은 서울의 골목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름하다. 마치 70년대 우리 동네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 길 양쪽의 풍경이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된다. 심우장은 북향집인데 남쪽을 향하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돼 북향으로 지었다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심우장이라는 글씨는 앞에서 말한 오세창 선생이 썼다.

‘심우’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 가지 수행 단계중 하나인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랜만에 내가 쓴 책을 다시 꺼내 들어보니 기분이 새롭다. 내가 책에 쓴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글로 마무리 된다.

“만해는 <님의 침묵> 군말에서 ‘맞치니의 님은 이태리’라고 말했다. 만일 만해가 현재로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만해는 이 시대의 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할까 참으로 궁금하다. 만해의 이 시대로 다시 살아온다면 만해의 님은 과연 무엇일까? ‘자주적으로 통일된 조국’ 아닐까? 맞치니는 이태리의 민주 통일을 위하여 싸운 혁명가였으며, 만해

는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독립 투사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민주와 통일은 아직도 ‘침묵’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분단 조국 속에서 ‘해 저문 별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들이다. 만해의 문학과 삶은 험난한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과 희망을 불러일으켜 준다. 만해의 끊임없는 실천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념과 사상의 일관성이야말로 만해 정신의 위대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백낙청은 그의 글 〈시민문학론〉에서 만해는 옛 한국의 위대한 전통시인이며, 한국최초의 근대 시인이며, 3.1운동이 낳은 최대의 ‘시민시인’이라고 격찬한바 있다. 향가, 고려가요, 한시, 시조 등 전통 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한편으로 외래 문학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해 바람직한 의미에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성취하고 있는 만해, 종교와 투쟁, 그리고 문학 예술이 함께 하면서도 실천과 사상, 그리고 일관성이 함께 빛나는 만해, 강직한 기개, 고고한 절조, 비타협적 투쟁, 불의에 대한 증오, 그냥 시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승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위대했던 만해, 주위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한용운을 다시 꺼내 읽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용운이다.”

심우장에서 나와 성북구립미술관으로 왔다. 구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다니 부럽다. 윤중식전을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다리도 아프고, 돈도 내기 싫고 해서 그냥 나왔다. 유명하지도 않은데 무슨 관람료를 받느냐는 억하심정도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윤중식은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등과 함께 활동했던 분으로, 국내 첫 상수(上壽·100세)전을 열고 있는 중이었다. 100세 생존 작가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도 드문 데 개인전까지 여는

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나의 무식함이 하늘을 찌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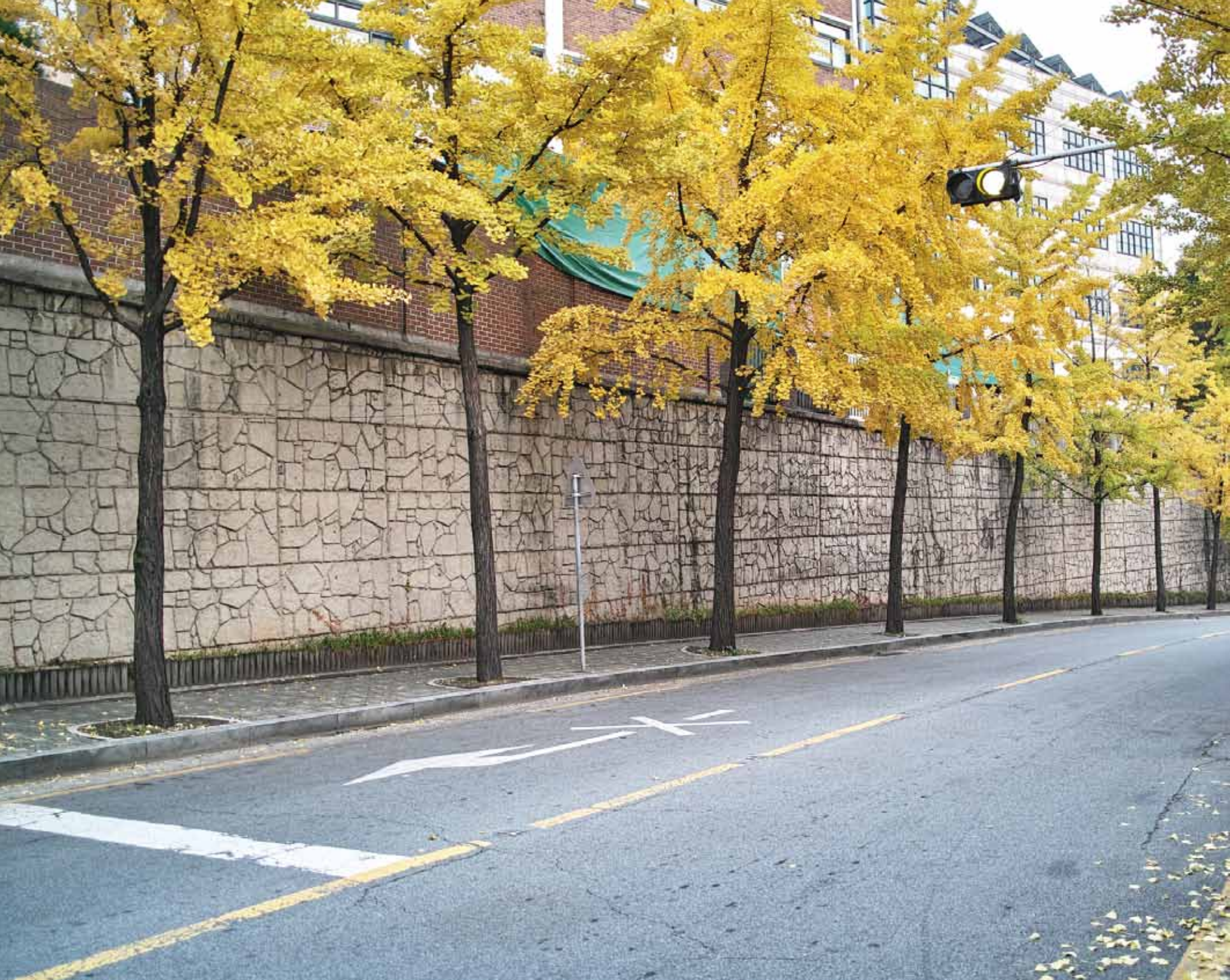
성북구립미술관 바로 왼쪽에 소설가 상허 이태준이 살던 ‘수연산방’이 있다.

현재는 찻집으로 개조해 차를 팔고 있다. 김기림, 김유정, 정지용 등과 함께 구인회의 일원이었던 상허는 ‘복덕방, 까마귀, 달밤’ 등을 썼는데 해방 후 월북했다. 북카페의 이름이 구인회다.

수연산방을 보고 요기를 하기 위해 광장시장으로 갔다. 빈대떡과 막걸리로 요기를 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다. 전통시장은 살아있다. 재벌이 절대로 따라 올 수 없는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한다. 광장시장은 또 육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리로 자리를 옮겼다. 아직, 서울은 돌아다녀볼 만한 곳이다. ㉠

* 신현수 시인은 충북 청원 출생으로 현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서산 가는 길〉, 〈처음처럼〉, 〈시간은 사랑이 지나가게 한다더니〉 등의 시집을 냈습니다.

* 이 글은 시인이 2012년 5월 성북동을 기행하고 쓴 글입니다. 글에 나오는 윤중식 화백은 2012년 7월 3일 타계하셨습니다.



티티카카 다이닝 클럽

성북동, 맛있는 이야기

김기민

카페 티티카카 및 성북동 부엌 운영장

‘성북동부엌’은 매주 목요일 저녁 성북동 카페 티티카카에서 열리는, 포트럭 파티 방식의 저녁식사 모임으로 매 끼니 꼬박꼬박 챙겨먹는 것이 일인 1인 가구 독거생활자들의 건강한 밥상을 성북동에서 차려보고자 만든 소모임이다. 사실 다른 누구의 밥상을 걱정하여 시작한 것은 아니다. 나의 밥상이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고,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홀로 나와 살며 먹을 것 제대로 못 챙겨 먹기를 1년, 이러다 죽겠다 싶어 요리에 대한 없던 관심을 쥐어 짜내기로 한 것. 일단 먹고 살고 봐야 하니까. 어차피 차려먹을 밥,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싶었다. 그렇게 티티카카에서 ‘성북동부엌’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지난 7월의 일이다. 반응은 고무적이었다. 4~6인 규모의 식탁을 기대했고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와 비슷한 고민, 유사한 외로움, 대동소이한 고립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존재하고 있으나 그들을 모이게 할 계기가 딱히 없었을 뿐임을 확인했다.

부엌은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에 이제 익숙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혼자하기를 희망하지는 않은 사람들의 소소한 해방구다. 때때로 같이 먹고 싶지만 친구와 약속을 잡자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막무가내로 밥을 먹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 사람들의 탈출구이기도 하다. 성북동부엌은 그들의 만남과 식사를 주선하는 중개인인 동시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

는 열린 공간이다. 개인의 집을 낯선 사람에게 개방하기 쉽지 않지만 카페는 상업 공간이므로 원래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까닭에 공동체 부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다. 게다가 저녁 시간이 한가한 유희 카페 주방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카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 좋고, 공동의 부엌과 식탁이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공간을 제공받아 좋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소정의 참가비(입장료)를 내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지참하면 되며, 직접 요리하여 가져오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감자와 양파 같은 식재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입한 음식이나 현찰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외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은 없다.

*포트럭 파티 Potluck Party : 주최자가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파티와 달리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해온 요리를 함께 나누어먹는 파티

소개할 요리 ‘동그랑땡’ - 추석맞이 전 부치기

동그랑땡을 비롯한 각종 전과 잡채 등 명절 차례상과 잔칫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을 나는 참 좋아했지만 차례는 큰 집에서 치뤘고 집에서 잔칫상을 차린 적은 없었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어머니께서는 잘 해주시지 않았고, 보통 식당에서도 만나보기 어려웠다. 나는 그런 음식들은 명절이 되거나 남의 잔칫집에나 가야 먹을 수 있는 귀하고 어려운 음식인줄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카페에서 밥 해먹기,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3개월 차가 되니 혼자서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게 되었는데, 기본을 익히니 그 동안 내가 좋아하지만 자주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요리하고 싶어 추석 특집 낫술모임에서 동그랑땡을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재료 : 돼지고기 간 것(한살림 돼지고기 분쇄육, 1팩 300g), 부추 한 줌, 당근 반 개, 두부 반 모
 양념 (밥숟가락 기준) : 참기름 반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소금, 후추

부침 준비 : 달걀 한 개 풀어서 준비, 밀가루, 식용유

순서

1. 돼지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하여 조물조물 섞어줍니다.
2. 당근과 부추를 잘게 다집니다. (부추가 없을 경우 파로 대체 가능)
3. 강포나 키친 타올 등으로 두부의 물기를 뺀 뒤 위생봉투에 넣어 입구를 밀봉한 다음 으깨줍니다.
4. 돼지고기에 잘게 다진 당근과 부추, 다진 마늘, 으깬 두부, 참기름 반 큰 술을 넣은 뒤 잘 섞어줍니다.

5.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궈줍니다.

6. 동그랑땡 반죽을 경단처럼 둥글둥글하게 뭉쳐 밀가루를 묻힌 다음 풀어놓은 달걀을 입혀 달군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7. 너댓 개의 반죽이 프라이팬에 올라가면 맨 처음 올린 반죽을 뒤집어 뒤집개로 살포시 눌러서 동그랑땡의 모양이 나오게 펴줍니다.

8. 앞에 올린 반죽들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부칩니다.

9. 키친 타올을 올려놓은 접시에 잘 부쳐진 동그랑땡을 옮겨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 내 입에 넣는다는 것의 의미를 혼자 살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알고 보니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다. 사람이 나이가 차면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살며 저 스스로 밥 벌어 먹고 살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은, 어쩌면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되는 우리의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부엌과 요리는 내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

국밥과 빈대떡 맛에 하루가 즐겁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박진하

국밥집 디미방 주인

성북동은 우리의 운명이다.

성북동은 사람을 끄는 마력이 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처음부터 그리 되려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운명처럼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 성북동은 우리의 운명이었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려 했던 우리는 그 준비과정으로 창업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조금씩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은 절반의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도를 사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 좋은 점포를 찾기 위해 2개월여를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한참 무더운 여름을 우리는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아지역에서 시작하여 안암동, 종로를 거쳐 인사동과 삼청동을 훑어가며 찾아보았지만 허사이었다.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 가게에 붙어있는 권리금이 너무나 높거나 아니면 그 장소가 가진 매력이 부족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머물려고 했던 장소는 삼선시장이었다. 이거다 싶었다. 일차적으로 점포를 정해두고 가격 타협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놈의 권리금이다. 쉽게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주고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객관적인 시야에서 그 점포의 가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창업 컨설턴트가 필요했다.



그는 우리가 정한 그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성북동 일대를 좀 더 찾아볼 것을 조언하고 있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온 우리는 그 날로 성북동으로 직행했다. 그런 다음 몇 번을 거친 끝에 도달한 곳이 현 위치이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찾아다니던 고행은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옛날, 그 시절의 고향식당

그 옛날 그 시절에 있음직한 그런 식당이고 싶었다. 조선의 정궁,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민속박물관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곳에 실물 크기로 재현한 선술집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였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공사업체에게 보여주며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했다. 식탁과 의자는 오랜 한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원목을 이용하여 제작했다.

그런 다음 창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화를 부착했다. 그 과정에

서 정말 우연하게도 우리 식당과 딱 어울리는 그림을 찾게 되었다. 겸재 정선 선생님이 그리신 진경산수화이다.

한양을 배경으로 그리신 여러 산수화를 보다가 동소문이라고 쓰여진 그림을 보게 된 것이다.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었다. 당시 겸재 선생님이 그 그림을 구상했던 위치가 우리 식당 부근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만큼 우리 식당을 위한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림 속에 보이는 성북천은 식당 앞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되었다. 그 그림을 중심에 두고 여러 한국화를 배치하였다.

어느 날인가, 간송미술관에서 춘계 전시회를 개최하던 그 때였다. 수수한 옷차림을 하신 일본 여성화가 한 분이 홀로 방문하셨다. 작년 가을 전시회를 하던 시기에 처음 찾아 주시고 올 봄에 두 번째로 오신 것이다. 부족한 일본어 실력을 필담으로 메워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동소문 일대를 그리신 그림으로 화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 산수화는 명당을 위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송미술관이 위치한 장소 또한 하나의 명당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 큰 쇼크를 느꼈다. 의외였다. 그러고 보니 간송미술관도 그렇고 그 그림 속에 있는 성북동도 명당이었던 것이다.

한양수도의 좌청룡은 낙산이다. 백두산의 힘찬 기운이 태백산을 타고 흘러내려와 수도 서울의 북쪽, 북악산에 머물렀다가 이것이 다시 왼쪽으로 흘러 내려와 자리 잡은 곳이 성북동이다. 지금은 북개되어 볼 수 없으나 맑은 물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으니 이른바 산수가 좋은 명당일 수밖에 없다. 마을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뒤편에는 푸른 숲이 있으니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이다.

디미방과 음식 그리고 맛

나름 오래 동안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 명인에게 김치를 만드는 방법도 전수 받고 소문난 식당에서 일을 하며 몇 년 동안 다져왔다. 그러나 음식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만 보면 치밀한 계획보다는 그 때마다 발생한 우연에 의해 전개된 측면이 더 강하다.

먼저 소고기 국밥이 그렇다. 이것은 어릴 때 먹던 그 국밥을 재현한 것이다. 소 잡뼈를 며칠 동안 우려낸 사골국물이 기초이다. 그런 다음 한우 목심에 대파와 무를 같이 넣어 끓여낸다. 사골 국물이 준비된 상태에서 두세 시간이 더 필요한 작업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집에서 단순하게 이 국밥 몇 그릇을 먹겠다고 끓여내는 것이 낭비이다. 그러니 식당에서의 판매품목으로는 무엇보다 적합한 것이었다. 근대적인 대중식당이 만들어지고 가장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 이 소고기 국밥이었다고 하니 더 그럴듯한 품목이었다.

이 국밥은 삼계탕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보양탕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발가락이 홀수인가 짝수인가를 확인하여 음양을 결정하였다. 큼직한 발톱 하나만을 간직한 한우는 양기가 풍성한 대표적인 동물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우는 먹 거리보다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소뼈를 푸욱 고아 사골을 내고 그 속에 고기를 넣어 만든 국물을 먹는 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사실 소고기 국밥은 국물 맛이 포인트라고 해야 한다.

국밥 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제육볶음이다. 이것은 당초 안주류로 생각해서 삽입된 메뉴인데 식사로 대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것은 일체의 조미료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조미료만큼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우리는 감칠맛에 열광하고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후원하고 계신 손님에게 들은 에피소드이다. 어떤 유명한 식당 창업 컨설턴트의 이야기라고 한다. 식당을 개업할 목적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다. 먼저 음식을 만들어 다들 나누어주고 시식하라고 했다. “맛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라고 하더라. 이번에는 조미료를 넣고는 만들어 먹어보라고 했다. 그래도 반응은 그다지 다르지 아니했다. 그러자 강사는 조미료를 큰 국자로 푸욱 퍼서 세 번이나 넣고 조리를 했다. 그런 후에 다 같이 시식을 하게 했더니 모든 참가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가장 쉽고 명쾌하게 맛의 비밀을 전수한 것이다. 사실 이 조미료가 유해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러니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싶다. 다만 우리 식탁에 감칠맛만 남아있고 다른 맛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모든 식품에는 그들이 가진 고유의 맛이 있다. 그런데 모든 음식에 조미료를 넣어 그 고유의 맛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싶다. 마치 이 세상은 수많은 색깔로 만들어진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흑백으로 바꾸어 본다면 참으로 아쉬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돼지고기는 달콤하고 고소한 그대로 고유의 맛이 있고 오징어에는 담백함과 씹을수록 느껴지는 독특한 맛이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식재료가 가진 그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다만 소금과 매실을 이용하여 맛의 풍미를 더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막걸리 안주로 그만인 빈대떡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빈대떡은 튀김에 가깝다. 기름을 듬뿍 넣어 튀기듯이 요리를 한다. 그에 반하여 기름을 적게 넣고 열은 불에 오랜 시간 굽는 방식을 채택한 우리의 빈대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기에 국산 돼지고기를

볶아 녹두 속에 넣어 굽는다. 그래서 이 빈대떡을 먹어 본 분들은 한국식 돈가스라고도 하신다.

모든 음식이 이런 식이다. 그러다보니 조금은 늦고 효율은 떨어진다.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제공되는 요리를 선호하는 분들보다는 다소 늦지만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찾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

식당은 소통하는 공간이다.

식당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시작은 주인이 하지만 좋은 식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손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하다.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송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 개관식을 하루 앞두고 관장님과 화가 한분이 오셨다. 빈대떡과 막걸리를 드시고 기분이 좋아지신 화가 분이 그림을 그려 주신단다. 이런 좋은 일이 있나 싶어 준비해 드렸더니 식탁 위에는 막걸리와 빈대떡을, 그 뒤편으로는 앞 머리카락이 몽땅 빠진 주인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셨다. 그리고 그림 속의 당신은 외눈으로 빈대떡을 지켜보고 있다. 마치 빈대떡이 맛있어 그것 밖에 안 보인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는 ‘이렇게만 그리면 재미없다. 우리 주인장에게 풍선이 하나 달아드릴까?’ 하시면서 가는 실위에 매어 달린 둥근 풍선을 그린다. 그리고는 우송이라고 서명을 하셨다. 95년도에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신 원로화가이셨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를 계기로 또 다른 화가 분들이 오셨다. 먼저 국전 서예부문 심사위원이신 선생님이 ‘無酒不立(무주불립: 술에 취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겠다)’이라고 쓰시고 붓을 놓자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또 다



좋은 음악을 담아 선물로 남겨주신 젊은 언니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작은 친절에도 감격해 주시는 젊은 총각님들, 그저 좋은 커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장인정신으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성북동콩 집을 비롯한 주변 상인님들, 특히 이런 지면을 허락하시고 추천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화가 선생님은 ‘山歌野唱(산가야창: 산이 먼저 노래하니 앞의 뜰도 그 화음에 맞춰 노래한다)’으로 화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식당 보물 1호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 후 예쁜 꽃들의 이야기를 고운 감성으로 전해 주시는 시인님도 오셨다. 그 다음 날 또 사모님은 직접 만드신 맛있는 물김치를 들고 오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성북동의 인심이었고 다정한 환영인사이었다. 이처럼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성북동은 우리를 반겨 주셨다.

이런 후원과 응원 속에 자라온 우리 식당도 벌써 개업한지 일주년이 되었다. 때로는 고되기도 하고 어려운 난관도 없지 않았으나 사람들 간에 오가는 따뜻한 인정을 맘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과분할 정도로 많은 음식을 주문하시고 말없이 맛있게 먹고 가신 예쁜 성북동 마님들, 신분을 감추시고 오셔서 그 옛날 동료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고 가신 어르신 분들, 집에서 손수 담근 귀한 매실을 가져다주시거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던 형님들, 직접 만든 피자나

성북동 사람들의 한마디

서울이지만 아직 시골의 인심과 정을 느낄수 있는 곳

- 북정마을에 사는 전현기

어릴적 친구들과 뒷골목에서 술래잡기나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던 생각

이 납니다. - 북정마을 유지영

가까운 곳에 나무와 숲이 있는 뒷동산 그리고 옛 성곽이 있어 서울이지

만 서울 같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 성북동 왕천호

길상사, 간송미술관 만해 한용운 선생님 옛집인 심우장 등 가까이에 여러 문화유적이 있어 자랑할 수 있는 동네

- 만해 한용운 선생님 생가 동네에 사는 서승환

복사꽃이 만개하는 성북동 마을 -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강성봉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동네. 서울살이에 지친 나를 밤마다 조용히 어루만져주고 안아주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 오래오래 살고 싶은 곳! - 문밖세상&움 변희정 대표

성북동은 성북구의 문이 열리는 곳 - 성북예술창작터 박소현 팀장

한국 예술의 찬란한 르네상스를 꿈꾸는 성북

- 성북구립미술관관장 김보라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미래의 어울림 마당 성북동

- 성북문화원 박수진 팀장

성북동 사람 이태준

성북동의 예술가

이경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삼선교에서 성북로를 따라 북쪽으로 걷다보면 나름 한다하는 맛집들을 만나게 된다. 한국인의 오랜 외식거리인 칼국수나 설렁탕은 물론이고, 택시기사님들이 자주 찾는 돈까스와 돼지불백 등 한 끼 식사로 썩 괜찮은 음식들이 즐비하다. 그 뿐인가. 최근 삼청동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더니 성북동까지 그 여파가 미쳐 고소한 커피전문점과 세련된 샌드위치 가게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긴 삼청동이 젊음으로 번성한다면 성북동도 뒤질 일은 아니다. 삼청동은 아기자기하지만 성북동은 그윽한 운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뜻밖일지 모른다. 맛깔 나는 음식이 코로 들어오는 사이에서 수연산방(壽硯山房)을 만나는 것은, 걷기 좋아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이미 보았을 것이다. 길이 좁아지고 고풍스런 운치가 시작되는 한 쪽에 오랜 세월의 색감을 띤 대문이 다소곳이 앉아 있음을. 이곳이 수연산방이다. 시원한 오미자차도 좋고 꽃마당도 예쁘지만, 1930년대 조선 최고의 소설가로 이름을 떨친 상허 이태준(尙虛 李泰俊)의 집이기에 더욱 기쁨이 난다.

누구누구의 집이라 하면 으레 태어난 집을 말하거나 오래 살았던 곳을 가리킨다. 생가(生家)니 고가(古家)니 하는 명칭은 대개 그런 경우에 붙여진다. 수연산방은 이태준이 태어난 집도, 오래 산 집도 아니다.



▲ 1946년 월북직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준 사진.

하지만 이태준이 서른 되던 해 직접 목수를 불러 지은 집이니 진정한 이태준의 집이라 할 것이다. 일본식 개량 주택이 속속 들어서던 식민지의 경성에서 한옥에 깃드는 ‘순박’과 ‘중후’를 탐내어 지었다는 수연산방은 여전한 순박함과 중후함으로 그곳에 그대로 서있다. 심지어 잘 가꾼 마당에서 오미자차를 마시는 기쁨까지 더해져서.

이태준은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지만, 역마살이 끼어서인지 방랑벽이 있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했다. 그가 처음 고향을 떠나 머무른 곳은 연해주 해삼위(海蔘) 그러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였다. 아버지의 망명길이었으니 어렸던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겠지만, 몇 달 후 그곳에서 이태준은 아버지를 잃고 말았다. 아버지로 인해 떠난 길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으니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와 어머니는 귀국해 함경북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의 가혹한 유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몇 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등졌고 그는 고향인 철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철원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함경도를 거쳐 철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9살의 고아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어린 이태준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철원에서 소학교를 졸업했다. 예나 지금이나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모양이다. 이태준은 길 위의 운명을 직각하고 자신의 손으로 새 삶을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각지를 떠돌았다.

그러다가 이태준에게 작가로서의 길을 보여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는 휘문고등보통학교였다. 이 때 휘문에는 박종화, 정지용, 김영랑 등 후일 작가로 이름을 날리게 될 인물들이 수학하고 있었고 가람 이병기가 교편을 잡고 있었다. 교지에 몇몇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도로 성장하던 이태준에게 세상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5학년 중 4학년을 다니던 어느 날 그는 동맹휴교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퇴학을 당하고 만다. 아버지의 망명과 아들의 퇴학이 나란히 놓이니, 피는 물보다 확실히 진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곧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의 처녀작 오몽녀(伍夢女)는 이때의 산물이다.(10여 년 후 오몽녀는 나운규에 의해 영화가 된다)

그의 등단을 도운 <조선문단>은 한국근대문학사의 첫 자리를 차지한 이광수를 비롯하여 김동인, 주요한, 염상섭, 현진건, 나도향, 박종화 등 활발하게 활동하던 젊은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던 곳이었고, 또 이름대로 조선에 처음 문단을 안착시킨 문학잡지였다. 지금에 학생들이 그들의 이름을 배울 수 있는 데에는 <조선문단>의 공이 크다. 하지만 가난한 고학생 이태준은 일본에서의 공부를 끝내지 못했다.

그는 귀국하여 조선 최대의 잡지사였던 개벽사와 3대 일간지 중 하

나였던 조선중앙일보 등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한편, 박태원, 이효석, 김기림, 유치진 등과 모더니스트 작가 모임인 '구인회'를 만들기도 했다. 같은 해 소설 <달밤>을 간행하기도 하고 수연산방을 짓기도 했으니, 이 시기가 이태준에게는 절정기가 아니었을까? 수연산방이 지닌 그윽한 멋스러움과 근사한 운치는 조선 최고의 소설가가 최고의 절정기에 지은 집이기에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였는지는 모르되, 다음 해 그는 기자직을 버리고 전업 작가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가마귀, 구원의 여상, 제2의 운명, 황진이 등을 출간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고, 지금까지도 문장 서술의 교본으로 언급되는 <문장강화>도 연이어 세상에 나왔다. 말 그대로 조선의 작가 이태준의 시대가 열린 때였다.

근 10년을 착실한 기자이자 작가로 활약하던 그는 1938년 돌연 만주를 여행한다. 이 때의 만주는 일본 제국의 속국이면서 중일전쟁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이니, 그의 여행을 자발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후로 황군위문작가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조선예술상을 받는 등 제국주의 국가의 폭력에 협력한 꼴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조용히 낙향해 해방까지 칩거했던 이태준의 마음 한 켠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역사적 한 시기에 친일을 강요받았던 조선인 작가이자, 폭압적인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유약한 지식인이었다.

해방 후, 이태준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펼친다. 이 때 그는 요즘 흔히 말하는 좌파였다. 문학가동맹, 남조선민전 등에 참여하며 그는 좌익을 지지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적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 오를 때였으니, 사람들은 각기 다른 꿈과 희망을 외쳤고 서로 다른 열정들이 싸움을 벌였다. 그가 월북하여

떠난 〈해방 전후〉는 그러한 정황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는 소련을 방문한다. 식민지시대 작가들 중 몇몇이 세계를 일주하며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지만 사회주의 종주국에 대한 문학적 기록은 이태준에게 맡겨졌다. 그가 남긴 소련기행은 지금도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찡찡한 서술로 회자되고 있다. 골방에서의 창작보다 거리에서의 실천이 중시되던 때, 이태준은 작가로서의 임무를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이태준은 곧 생명을 다한다. 북으로 간 모더니스트의 운명이 대개 그러했듯, 그도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혹한 비판에 직면한다. 구인회 시절의 이력이 반동으로 낙인 찍혔던 것이다. 그래도 작가였던 그는 몇몇 단편과 작품집을 출간하며 활동했지만 결국 가혹한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 했다. 숙청 후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전해지지만 그도 풍문뿐이요, 이후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

2013년 가을의 초입, 가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다. 수연산방의 꽃은 이미 졌을 것이다. 대신 단풍으로 피어올랐겠지. 쓸쓸해지는 바람을 타고 이태준과 그의 손때가 묻은 수연산방이 떠오르는 것은, 다만 문학을 곁에 두고픈 마음 때문은 아닐 것이다. 파란만장했던 시대와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글을 썼던 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 때문도 아닐 것이다. 그저 가을이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계절이 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태준의 수연산방은 길 맞은편 한용운의 심우장과 얼굴을 마주보고 겨울로 가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

한 눈으로 보는 성북동천 마을 학교 시 창작교실 작품 ▶

* 이 작품들은 성북동천이 개설한 시 창작 교실 참가자가
강좌 시간에 쓴 작품입니다.

아버지

강상훈

아버지가
잠근 방에서 며칠을 안 나오셨다

어머니가 열쇠장이를 불렀고
문을 따고는 그가 말했다

“사람이 있었네.”

말 없이 걸어 나온 아버지가
나를 안아 올렸다.

입추

김선정

나이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눈가의 잔주름 썸이야 봐줄 만 하다고
그러나 여기저기 비명을 질러대는
내 몸의 관절들

입추 즈음
시린 하늘이 높아만 간다

김기민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본다
월세, 공과금, 관리비, 대출이자가 빠지고 나니
원래 그곳에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린 돈

소년도 갔다

그들 모두 투명인간이 되었다

박진하

애야 송편은 먹었니?
내가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슬픈 눈으로 이 어미를 지켜보는 애야!
송편은 먹었니?
난 지금 조금 피곤해서 누워있을 뿐이다.

오늘은 추석,
두둑한 용돈을 받은 아이들은 즐겁다.

이민우

해가 길게 늘어진 오후
베란다 창문 사이
놀이터의 아이들 소리
오랜만에 기분이 들떠
과자를 굽는다.

밀가루 한 주먹, 소금 반 스푼
버터 한 숟가락, 설탕 세 수저
따뜻하게 반죽하고
둥그랗게 모양 내어
오븐에 사십오 분
그리고 땡!

아이들 소리 사라진 놀이터에
혼자 남아
따뜻한 과자를 먹는다.
모래 주변에 검은 봉지가
고양이처럼 기어다니고
긴 그림자 검은 꼬리처럼 춤춘다.

해가 길게 늘어진 오후
부르르 울리는 핸드폰에
입 안 가득

“엄마.”

서정혜

새벽이 눈을 뜨고 손을 뻗었다.
깊게 패인 주름
끓어질 듯 이어질 듯
고르지 않은 호흡
이젠 홀로 남아야 하는 시간
당신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당신의 분신이 되고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모습을 가진 당신
당신의 이름은 아버지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
내 마음은 별이 된다.

서울 지붕 첫 마을, 성북동 옛날 사진전

이 사진은 '스페이스 오뉴월'에서 2013년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서울 지붕 첫 마을, 성북동 옛날 사진전〉의 모습입니다.



기획 : 스페이스 오뉴월, 시인 최성수, 작가 윤가현 (www.yunkahyun.com)

주관 : 스페이스 오뉴월, 성북동천

후원 : 성북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순우옛집

‘성북동천’ 마을학교가 개최한 강좌

2013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좋은 마을 만들기'

성북동 마을학교 무료강좌

성북동에 있는 주민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강좌 및 연대 활동의 장 '성북동 마을학교'에 주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인 시 창작

시 창작 교실

내용> 작사가 겸은 영과 주변의 자들을 시로 옮겨보기
 일일> 9.23(월) 10:00~12:00 "시를 무엇인가"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9.24(화) 10:00~12:00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창작 실습
 9월 일 시 낭송 대회 작품 "변화를 꿈꾸는 10년만의 시인들"
 장소> 스페이스 오뉴월 신길로 12-4 (성북동 52번지)
 대상> 성인
 강사> 최정수 시인

청년 만남

내용>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떠나야 하는 청년들 간에
 지난날과 같은 기억과,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겪고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는 공부 모임
 일일> 9.28(토) 10:00~12:00
 경세사와 관련된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
 10.10(수) 10:00~12:00 이진 모임을에서 결정
 11.10(수) 20:00~22:00 이진 모임에서 결정
 장소> 카페 지리산 1성북동출판사 후원
 대상> 성북동에서 거주하거나 생활·여행 혹은 활동하는 청년
 신청> 김기민 (카페 지리산) 대표
 #지리산출판/성북동출판사 등 각종 소모임 운영

어린이 스토리텔링 공부방

내용> 글쓰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글쓰기를 체험한다.
 일일> 10. 5(토) 10:00~12:00 카피수업
 10. 12(토) 10:00~12:00 실습수업

어린이 글쓰기

내용> 성북동 일대리미와
 성북동주민센터 5층 다목적실
 대상> 어린이
 강사> 김정희
 "글머리" 10. 19(토) 10:00~12:00

쉽고 재미난 미술 이야기

일일> 10. 16(토) 10:00~12:00 성북동주민센터 5층
 11. 2(토) 10:00~12:00 카피수업
 대상> 어린이와 보호자
 강사> 김철우 화가
 10년 전 및 국내외 단체전 200여회 개최 작가
 서울산업대학교·홍익대학교·세명대학교·대진대학교·창사 역민
 한국미술협회·한국수채화·아시아수채화연맹원 회원

어린이+가족 미술

내용> 미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술에
 관심을 갖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미술작품의 아름다움과
 상상력을 배워볼 수 있다.

누구나 미술 설치

내용>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도예반을 통해 도자기 작품을 만들고
 이를 마을 내 지붕, 담장 위 등에 설치하고 전시하는 함께 마을을 꾸미는 수업
 일일> 10월 12일 10:00~12:00 (2일차 재배)
 장소> 성북동주민센터 5층 다목적실
 대상> 누구나 누구나 미술작품의 아름다움과
 상상력을 배워볼 수 있다.

주최·후원 성북동천 후원 eb 성북구청 장소 eb 성북동주민센터 ONewWing TEATEACACA
 문의 070-8871-5998 (카페 지리산) facebook.com/seongbukdong.town seongbukdong.town@google.com



어린이 스토리텔링 공부방



쉽고 재미난 미술 이야기

박용선

성북동 주민

서울성곽 부근에 조용하고 따뜻한 마을, 성북동이 있습니다. 북정마을이라고 하면 알까요, 이곳은 아침해가 밝아오기 시작하면 서울인데도 해머리가 제법 일찍 보이는 동네입니다. 젊은이들보다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아, 새해첫날에는 해맞이 행사도 하고 정월보름날 윷놀이 대회도 하고 봄가을 축제도 하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그 시절 봄여름 가을 겨울 성북동 사계절 먹거리

겨우내 얼었던 자연이 봄이 되면 아직 쌀쌀한 봄바람이 개천가 돌틈 사이 제비꽃과 민들레를 피우고 우물 속 얼음을 녹여, 동네 아주머니 물 길어 오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던 그런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양지바른 언덕에 파릇파릇한 냉이와 돌 씀바귀, 밥상 위로 올라오길 기다리는 봄나물들이 가득한 사람살이 몇 안 되는 작지만 풍성한 이 곳. 사계절의 경계가 뚜렷하고 사람 사는 모든 생활들이 자연의 흐름과 함께 하던 옛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봄이면 얼마 안 되는 텃밭에 시금치와 아욱 같은 것을 심고, 여름이면 상추, 썩갯, 고추, 옥수수를 먹고, 가을이면 배추와 무를 심어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지요. 수확하는 쌀이 부족하여 배급받은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 끼니를 해결하던 그 때. 시켜면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 두부를 만들고 남

은 비지를 사다 찌개를 해 먹었던 것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지, 어렸던 그 시절의 가난했던 먹거리들을 요즘 사람들은 별미로 찾아다니며 먹고 있더군요. 참 신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웠기에 생활이 비슷했고, 지금 아버지 연령 즈음에 계신 분들은 인쇄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런 봉투에 봉급을 한 달에 2번 타는데, 늘 그날 저녁이 기다려졌었습니다. 퇴근길에 꼭 'ABC 동물과자'를 사 오셨기 때문이었지요.

그 시절 그 생활

봄이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창문 틈을 통해 방 안 가득 찰 성 싶은 것이, 지금에서야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는 걸 보아 그 때 생활로는 그 향기를 느낄만한 여유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더운 여름에는 뒷동산에 있던 제법 오래 된 오동나무-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늘 아래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장기를 두며 더운 여름 날씨를 피하시던 어르신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녁밥을 먹고 해가 지면 밤에는 아이들과 아주머니 차지였지요. 그 때 그 가마니에 누워 가만히 하늘을 보면, 별이 초롱초롱한 밤 풍경과 짙은 오동나무 향기로 더위를 잊던 서울의 작은 우리 동네였습니다. 동네에 잔치나 곳은 일이 생기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 동네마냥 이웃집 일을 다 알고 지내는 훈훈한 인심도 있었지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 안에서도 아직까지 그 모습이 보이는 동네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입니다.

어린 시절 성북동 놀이

그 시절, 제가 어린아이였다는 게 참 행복했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 시절의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것이 천복(天福)이라 느껴집니다. 1년 365일 내내 자연과 함께 놀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요즘 아이들 입장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할테지만,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자란 성북동 우리 동네는 단언컨대, 최고의 놀이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예전 성북동 뒷산에는 작은 실개천(川)이 있었는데, 그 주변은 온통 동네 아이들 차지였습니다. 올챙이 잡아 집에 가져오기, 나뭇가지 잘라 칼싸움하기, 술래잡기, 연탄재 던지기, 다방구놀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놀거리야 무궁무진합니다. 봄이 되면 잡초 섞인 봄나물도 캐고, 아카시아 꽃 따먹다가 산지기 아저씨한테 쫓겨 줄행랑치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철 방학이 시작되면 능금 사러 세검정 자하문 너머 밀가루 포대자루 메고 하루 종일 걸어서 다녀왔던 일도 생각납니다. 소나기가 온 뒤에 따먹는 산딸기와 버찌, 보리수 열매 맛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꿀맛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개학 전날 방학 숙제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놀았던 기억들이 너무 행복한 추억입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로 넘어가면 팽이치기, 불장난, 깡통차기, 대보름날 깡통 돌리기, 연날리기 같은 또 다른 놀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특히 골짜기에 자리한 우리 동네는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겨울 연날리기 명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북정회관(할아버지 노인정) 자리에는 연난산이라는 이름의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연을 한번이라도 날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만큼 연을 띄우기 가장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저어기 앵두 밭 너머에는 방패연을 만들어 파는 연 도사 아저씨가 있어 설날에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이 연을 사서 이 곳에서 연날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날리기 하면 연싸움이 빠질 수 없는데, 군복 수리할 때 사용하는 아주 튼튼한 국방색에 사기를 곱게 뿜은 가루와 아교를 같이 풀어 실에 메겨-사기를 메긴다고 합니다- 연싸움을 하여 상대방 연줄을 끊어낼 때의 기분이란! 이 싸움의 강자가 되려면 실을 풀고 감으면서 바람을 잘 이용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동네에는 쌍다리라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성북초등학교 주변으로 작은 나무다리와 주(主)다리 2개로 이루어진 쌍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삼청각 윗 부근에서

시작하여 성북구청 뒤로 흘러 대광고등학교 까지 흐르는 성북천(川)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 삼선교 주변 복구작업을 마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예쁜 쉼터가 되어있지요. 그 옛날, 이 천(川)을 건너가려면 구멍이 숭숭 뚫린 철판다리나 그 아래에 돌을 놓아만든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머리 큰 내 친구 ‘짱구’가 장마철에 징검다리에서 중심을 잃어 거꾸로 처박혔던 웃지 못할 기억도 납니다. 그 친구 지금은 뭘 하고 사는지, 여전히 머리가 큰 지 알 길이 없네요. 예전에는 물이 깨끗해서 봄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겨우내 묵은 빨래를 하던 곳이 바로 앵두 밭 너머 개천, 지금의 성북천(川)이었습니다.

이 쌍다리를 건너 좌측 언덕배기를 쭉 올라오면 지금의 북정노인정이 있는 동네가 제가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뒷산에 흐르던 작은 실개천(川)은 아래로 내려가면 쌍다리에서 성북천(川)과 만났고, 위로 올라가면 서 동네 식수로 사용되던 6개의 돌우물이 계단식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들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문을 닫아 관리되었고, 그 문 열쇠는 동네를 관리하는 어르신이 지니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물지게에 지고 오던 생각이 납니다. 물맛 좋은 이 우물은 우리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설이었음과 동시에, 매년 초겨울 산재를 지내 동네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톡톡히 했지만 언젠가 큰 장마가 지난 후에 산사태로 인해 그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동네 뒷산 안에는 서낭당이 있어 가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쓰였는데 그 안에는 연못이 3개나 있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먹을 감곤 하였지요.

내내 평화로웠던 것만 같은 우리 동네에도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8년 1.21사태가 바로 그 때인데,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고 계

신 김신조가 동네 뒷산으로 넘어 올 때에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의 분위기가 살벌하였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저의 기억으로는 꼭 전쟁이라도 나는 것 같았으니 말입니다.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총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헬기로 대포를 실어 나르는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 둘 동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는 군부대가 들어섰고 산도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하였습니다. 성곽 주변의 무허가촌은 철거를 감행하여 주민들을 신정동으로 이주를 시켰으며, 뒷산에 남아있던 3개의 약수터도 모두 철조망 안으로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우물에서 식수를 길어 먹었던 동네였는데, 이후 전 가정에 수도가 공급되어 생활이 조금씩 나아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곳곳에 전신주와 전화선도 들어왔고, 현재 우리 동네를 둘러나가는 소방도로도 그 때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은 빠르게 많은 발전을 하였고, 여전한 것은 동네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서울성곽길을 예쁘게 조성하여, 덕분에 동네를 통해 성곽길로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사람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날이 선선한 봄 가을 철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사는 냄새’나는 동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동네는, 아직도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아침이 되면 서로 만나 담소를 나누고, 꼭 노인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면 하나둘 모여, 결국 한 자리가 되곤 하지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앞집 개똥이네, 건넌집 순이네 이집 저집 참견을 하시는가하면, 모인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눠먹기도

하며 하루가 가는지 모르게 정겹게 사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서울 안에 흔치 않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 오후, 뒷골에 나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멀리 비치는 따뜻한 햇살과 깊어가는 가을 내음에 흠뻑 젖어들곤 합니다. 발아래 돌 틈에 듬성듬성 나있는 풀들이 누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올 한해도 다 갔구나하는 시간의 흐름을 알아채곤 합니다. 아마도 따뜻하고 조용한 우리 동네라서 그 한가로움과 아쉬움을 더 깊게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어마어마한 빌딩 속에 살지는 않지만, 동네사람들과 어깨부딪히며 마음만큼은 그 어느 부자 못지않은 이 곳 성북동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고마운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몇 년전부터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혹여 우리 동네의 이러한 모습들을 잃게 될까봐 마음 한 켠이 편하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이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사람사는 냄새 하나로 다같이 살고 있는데, 삭막한 도시의 빌딩숲 속으로 그 모습이 사라져, 옛 추억과 지금 사람들의 정(情)까지 함께 변할까봐 안쓰럽기만 합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처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그 본연의 모습을 후대에까지 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나고 자란 동네라 더 그런 것 같지만, 서로 알고지내며 소박하고 두런두런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동네가 지금까지 그런 향기를 지닐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그리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성북동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김철우 화백이 그린 성북동 풍경

‘성북동천’ 마을소식지 후원 업체 명단

1.



1. 티티카카 | 홍차 전문 카페 (Tea Room)

2. 성북동공집 | 커피 전문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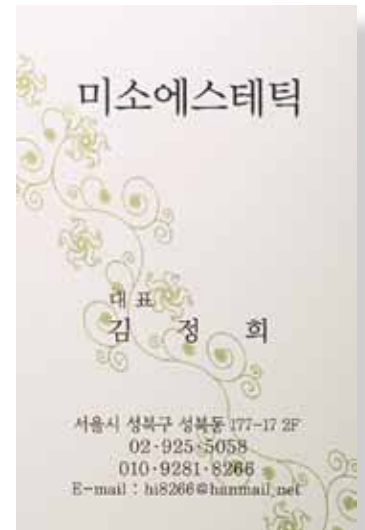
3. Bon PALATE | 이탈리아 레스토랑

4. 바퀴달린 그림책 | 우리 아이가 만드는 그림동화책

5. 미소에스테틱 | 나에게 주는 선물, 힐링의 시간

6. 키친 재원 (kitchen J one)

5.



2.



4.



3.



6.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잡지 창간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2013년 11월 20일 발행

편집 | 김홍식 오예주 장영철 최성수
디자인·사진 | 김선문(성북동 초록옥상)
펴낸곳 | 성북동천

성북동천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12-6
(카페 티티카카)

070. 8871. 5998

〈비매품〉